

# 정초부터 월북에 北 무력시위까지... 종전선언 물거품 우려

월북사건으로 어수선한 틈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3월 한미연합훈련·韓 대선 압박 메시지 차원 발사 추측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시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일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발생한 월북사건에 대한 전비태세검열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날, 공교롭게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강원도 고성 강릉-제진 동해선 착공식장을 방문해 남북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이 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北 미사일발사는 南 떠보기, 한미공조 흔들기 양수경장

5일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8시 10분경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구체적인 비행 제원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일본측은 통상적인 탄도미사일 궤도일 경우 약 500

km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초 다음달 4일 개최될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자중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북한은 새해부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이는 대통령선거와 최근 발생한 월북자 사건 등 어수선한 한국의 정국을 이용해, 한국의 안보기조를 간보기하듯 찌러보며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군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범여권에서 힘을 주고 있는 종

전선언과 3월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저울질하기 위해서라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날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3월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에 대해 “한·미 안보협의(SCM) 회의에서 논의된 훈련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최고의 준비태세를 유지해 한국을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 간 결정사항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흔들

림 없는 의지를 보이자 북한이 발끈하는 형국이 된 셈이다.

지난 2018년 3월 대북특사단이 방북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의외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대북특사단은 기자간담회에서 “예년 수준의 한·미 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이해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전달했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3개월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이를 뒤집었다.

## ◆軍일각, “범여권의 대북관 우려...北 도발 이성적 판단해야”

이후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한·미연합훈련중단 또는 연기를 마치 대북대화의 카드처럼 생각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들어 종전선언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은 ‘종전선언이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면서도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0년 11월 22사단 55여단 GOP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이 탑재된 광망 철책을 넘은 미상의 남성은 지난 1일 또 다시 22사단 철책을 넘어 병력이 철수된 369GP인근을 통해 북으로 넘어갔다. 군 당국은 이 미상 남성의 대공 용의점을 부정했다.

익명의 군 간부는 “열상장비는 사람의 체온으로 움직임을 식별한다. 광증폭으로 또렷한 상을 찾아내는 방식에 비해 정확한 형태를 구분하기 힘들다”면서 “군 당국이 월북자가 북측에서 내려온 4명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22사단 GP에서 근무한 예비역 장교는 “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평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도 “우리와 대적한 적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점도 명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탈북자는 2020년에 험난한 산맥을 뚫고 고성 중심지와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55여단 철책을 넘었다. 이번에는 금강산가는 길로 알려진 56여단 쪽의 가경지길과 연한 비무장지대 평화의길을 통해 368GP와 369GP 사이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2사단 월북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에 대한 질책을 언급하지 않다가, 이날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로 이런 상황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 조선업 8년 만에 최대실적... 세계 1위 도약

(고부가·친환경 부문)

지난해 수주 실적 전년비 112% ↑ 고부가 전세계 발주량 65% 차지

지난해 우리 조선업이 8년 만에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전체 실적에선 중국에 이어 2위였으나, 고부가·친환경 선박에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2021년 한 해 동안 1744만CGT를 수주해 2013년(1845만CGT)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주실적은 2020년(823만CGT) 대비 112%,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2019년(958만CGT) 대비 82%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그간 침체됐던 국내 조선산업이 회복을 넘어 재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전 세계발주량은 4696만CGT(1071억 달러)로 중국(2292만CGT)에 이어 한국이 2위였다.

전세계 발주량 대비 국내 수주비중은 37.1%로 2019년 31.2%, 2020년 34.1%에 이어 상승 추세다.

전체 수주량 중 고부가가치 선박(1252만CGT)이 72%, 친환경선박(1088만CGT)이 62%를 차지해 고부가·친환경 선박이 우리나라 주력 선종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수주실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 1940만CGT(302척) 중 65%에 해당하는 1252만CGT(191척)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선종별로 보면, 최근 선가가 상승 중



친환경 대체 연료 ‘바이오중유’ 선박 실종을 성공적으로 마친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HM M드림호’.

인 대형 LNG운반선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의 89.3%를 우리나라가 수주했으며, VLCC는 88%, 해운운임 상승으로 발주량이 크게 늘어난 대형 컨테이너선(1.2만TEU 이상)은 47.6%를 우리나라가 수주했다.

최근 국내 수주비중이 지속 상승하는 친환경선박의 경우도 전 세계 발주량 1709만CGT 중 64%에 해당하는 1088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해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기록했다. 연료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 선박 수주량 중 약 82.4%가 LNG 추진 선박이며, 뒤를 이어 LPG 추진 선박이 11.6%, 메탄올 추진 선박이 4.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대형 조선 3사도 LNG·LP G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탱커)을 중심으로 목표 수주액을 크게 초과 달성했다. 현대 3사는 LNG선 255만CGT, 컨테이너선 251만CGT, LPG선 121만CGT, 탱커 124만CGT 등을 수주해

목표 수주액(149억달러) 대비 53%를 초과한 228억달러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 237만CGT, LNG선 190만CGT, 탱커 24만CGT를 수주해 목표수주액(91억달러) 대비 34%를 초과한 122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구조조정을 완료한 대한, 대선, 케이조선, 한진 등 중형조선사의 경우 4사 모두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발주량이 반등한 지난해와 달리 2022년엔 글로벌 발주가 전년 대비 23.3% 감소한 3600만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발생했던 이연 수요가 지난해 대부분 해소됐고, 2021년 수주계약 증가에 따른 조선소의 슬롯 제한, 선가 상승에 따른 선주의 발주 시기 관망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K푸드 날개... 농수산물 수출액 ‘최고치’

지난해 113억6000만달러 사상 최초 100억달러 돌파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 확산과 물류 대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수산물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농수산물 수출액(잠정)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113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 수출이 85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9% 올랐고, 수산식품은 전년보다 22.4% 증가한 28억 2000만 달러 수출 기록을 세웠다. 농수산물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식품과 가정 간편식 인기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신선농산물은 15억 7110만 달러, 가공식품은 69억 662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김치·인삼류 등 건강식품과 라면·과자류·음료·소스류·쌀·가공식품 등 가정간편식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딸기·포도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와 인삼은 건강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가별 김치 수출실적을 보면 일본, 미국, EU·영국 순으로 높고, 인삼은 중국, 미국, 베트남 순으로 많이 수출됐다.

라면·소스류·쌀·가공식품 등 가정간편식도 한류 확산과 코로나19로 증가한 수요를 바탕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라면은 일본, 대만, 네덜란드 순으

로 많이 수출했고, 소스류는 미국, 러시아, 일본 순으로 수출이 많았다.

정부가 스타 품목으로 육성한 딸기와 포도는 합산 목표 수출액 1억 30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산하는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딸기는 정부가 지원한 전용 항공기를 통해 홍콩, 싱가포르로 주로 수출돼 현지 고급 호텔·디저트숍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판매됐고, 포도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당도·크기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중국에서 고가(한송이 약 12만 원)로 판매되는 등 호응이 크다.

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주력 품목인 김(6억 9280만 달러), 참치(5억 7920만 달러) 이외에도 어묵(4950만 달러), 굴(8010만 달러), 넙치(5500만 달러) 등 여러 품목의 수출액이 상승했다.

김의 경우 10년 넘게 매년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다. 김은 한류 확산에 따른 인지도 상승 영향을 받았다.

미국·일본·중국 등 무론 그간 한국 김이 수출되지 않았던 포르투갈, 키프로스, 부탄 등까지 수출시장이 확대돼 2021년 말 기준 세계 114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김 수출액 경신은 유기농 김부각, 채식주의자용 김밥김, 양념 김자반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은 물론, 유아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해 한류 마케팅을 펼치고, 유기농 인증이나 식품안전규격인증 등 국제인증 취득하는 등 김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종=한용수 기자